

“요즘 보기 드문 순수한 수필집 같은 영화”

14일 개봉 ‘출국’ 경제학자 영민 役 이범수
독일 유학 중 북한 공작에 빠져 월북
북에 남은 아내·딸 구하기 위해 사투



영화 ‘출국’ 스틸 이미지.

“오랜만에 극장가에 나오는 진정성 있는 영화입니다.”

오는 14일 개봉하는 영화 ‘출국’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이범수(48)를 6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출국’ (노규엽 감독)은 1986년 베를린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다. 1985년 독일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가족과 함께 월북했다가 이듬해 아내와 두 딸은 북에 남겨놓고 탈출해 귀순한 오길남 박사의 책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을 모티브로 했다.

이범수는 독일에서 유학 중인 경제학자 영민을 연기했다. 영민은 서독에서 북한 공작원의 말에 걸맞은 선택을 하고, 이 일로 아내와 둘째 딸과 헤어진 뒤 가족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이범수는 “흥미와 볼거리 위주인 요즘 영화들과 달리 부성애, 가족애 등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자극적인 소설을 읽다가 순수한 수필집을 읽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심한 감정의 변화와 갈등, 변명과 같은 감성 연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을 오랜만에 만났다”면서 “배우로서 남 주기가 아까워 출연했다”며 웃었다.

‘인천상륙작전’ (2016)에서 북한군 장교 립게진 역을 맡는 등 최근 주로 악역을 연기한 이범수는 “악역은 합법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 재밌다”고 농담한 뒤 “데뷔 초부터 코믹 연기나 바보스러운 연기, 악역, 멜로 연기 등 다양한 연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굳혀지는 것을 경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는 어떤 그릇에 담아도 표현해낼 수 있는 무형무색이어야 한다고 19살 때부터 배웠고,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흥행 코드도 중요하지만, 뻔한 것을 또 하기보다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극 중 영민처럼 실제 두 자녀를 둔 아빠다. 이범수는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소통하고 저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은 정말 경이롭다”면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이 작품도 100% 상상만이 아니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제작 지원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하이트리스트’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논란에 대해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을 할 때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으로 믿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언뜻 줄거리만 보면 리얼리즘이 주연한 할리우드 영화 ‘테이큰’을 떠올리게 한다.

“일부러 ‘테이큰’과 차별화하려고 했어요. 극 중 영민은 형광등조차 제대로 갈아 끼우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가족을 구하려는 집념 때문에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액션을 잘할 수는 없으니, 수위를 조절하려고 노력했죠.”

이 작품은 폴란드 현지에서 촬영됐다. “그는 ”백백한 스케줄 속에서 두 달간 오차 없이 촬영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지 만, 보람도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범수는 1990년 영화 ‘그대 가끔 하늘을 보자’를 시작으로 단역과 조연을 거친 뒤 드라마 ‘외과의사 봉달희’ ‘자이언트’ ‘아이리스2’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내년에는 그가 주연과 제작을 맡은 ‘자전차 왕 엄복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4년만에 돌아온 OCN ‘신의퀴즈’ 류덕환 “제2의 ‘전원일기’ 죠”

14일 밤 11시 첫 방송

많은 마니아를 낳은 OCN 드라마 ‘신의 퀴즈’가 4년 만에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2010년 처음 선보인 ‘신의 퀴즈’ 시리즈는 메디컬 드라마와 수사극을 결합한 형식으로 OCN 채널의 정체성을 다진 작품이기도 하다. 희소병에 얽힌 미스터리와 의문의 사건을 풀아가는 과정을 빈틈없이 엮어 호평받았다.

오는 14일 OCN에서의 첫 방송을 앞두고 드라마 제작진과 배우들은 “새롭지 않다면 돌아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제가 시즌5가 아닌 ‘리부트’인 것도 그런 영향이다.

시즌1부터 4까지 대본을 집필하며 극 중 세계관을 구축한 박재범 작가가 이번 시즌에는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작품 색깔을 유지하되 김종혁 PD와 강은선 작가가 만나 신선함을 불어넣는다.

4년 만에 복귀한 천재 의사 한진우는 이번에도 ‘온몸으로’ 수사한다. 어디로 뺄지 모르는 자유분방함 속에 사건을 꿰뚫는 통찰력이 빛나는 인물이다.



그런 그 앞에 인공지능 부검의 코다스(CODAS, Cause of Death Analysis System)가 등장하지만, ‘수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한다’는 한진우를 막을 수는 없다.

류덕환<사진 왼쪽>은 지난 5일 제작발표회에서 “4년 만에 돌아와 영광이다. 처음에 할 때는 대본이 재밌어서 시작한 드라마인데 즐기면서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특한 소재의 드라마다 보니 시청자들이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다. 다시 찾아주시니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감사함으로 임하게 됐다”며 “제게는 제2의 ‘전원일기’ 같은 작품”이라고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14일 밤 11시 방송. /연합뉴스

빅뱅 승리, SBS ‘가로채!널’ 고정 멤버 합류

빅뱅 승리<사진>가 SBS TV 예능 ‘가로채!널’에 고정 멤버로 합류한다고 SBS가 6일 밝혔다.

‘가로채!널’은 국내 스타들이 크리에이터로 변신해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개그맨 강호동, 양세형 외에 AOA 설현과 찬미가 출연한다.

그 뒤를 이어 합류한 승리는 추석 파일럿 방송 때부터 이 프로그램과 함께해 앞으로 고정 멤버로도 활약할 예정이다.

승리는 지난 추석 파일럿 방송에서 강호동이 가장 잘하는 ‘대결’을 주제로 제작한 콘텐츠 ‘강호동의 하찮은 대결’의



승부사로 출연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강호동에게 패배해 벌칙으로 얼굴에 오징어 먹물로 먹칠을 당해 웃음을 줬다.

승리가 강호동을 상대로 설욕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15일 밤 11시 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오피스 격전기(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속보보는TV 인사이드(재)	00 12 MBC 뉴스 25 내 뒤에 테리우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서편제보성소리축제기념 명창대전 50 삼화재 월드바둑 마스터스 준결승3국 <인국현 8단·탕웨이싱 9단>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5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랑스런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보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박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20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 <두산:SK>	15 생방송 빛날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35 미니다Q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었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토크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비켜라 운명아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경제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죽어도 좋아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홍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재동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김신영의 TMI 언더나인틴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新삼국지-제3부 간웅, 조조의 재발견> 06:00 한국기행(재) <노포기행 3부 찬바람 불면, 어죽>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웅강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말랄라 뿌우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츠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해물파전X김치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청오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독도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재) 14:30 코코몽3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웅강한 소방차 레이 16:30 말랄라 뿌우(재) 16:45 당동댕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20:40 세계테마기행 <신선의 땅, 인간의 마음, 중국 무릉도원 3부> 21:30 한국기행 <그해 가을 남해 3부 시문마을에 무슨일이 생겼나>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참신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48년생 불잡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것이다. 60년생 구태의연한 인습은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72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익이다. 84년생 현재의 상태와 유사하게 지속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4, 66
丑	37년생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49년생 실속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61년생 진행 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 없다. 73년생 구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선행을 해 보는 것도 무방하다. 85년생 오늘 추진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크겠다. 행운의 숫자 : 74, 18
寅	38년생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50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곤경에 빠진다. 62년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74년생 김홍이 교차하니 맹점이 없는지 살펴보자. 86년생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에 따라 전망지차가 난다. 행운의 숫자 : 63, 28
卯	39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51년생 지대한 천재를 보인다면 인망을 잃는다. 63년생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만 제대로 되어 가리라. 75년생 교제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87년생 뜻 깊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86, 30
辰	40년생 설계를 잘 해야 구조물이 제대로 지어지는 법이다. 52년생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새로운움을 볼 수 있다. 64년생 면밀하게 판단할 일이다. 76년생 능률적이고 실제적이어야만 유용하리라. 88년생 쓸 만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행운의 숫자 : 46, 73
巳	41년생 실행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53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 되느니라. 65년생 바탕이 빈약하니 기본에 충실함이 순조로울 것이니라. 77년생 우연히 현장의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89년생 주의한다면 의외의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4, 21

午	42년생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66년생 겸손하다면 난관을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78년생 거슬러다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옳다. 90년생 불안전하므로 지금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다. 행운의 숫자 : 21, 41
未	43년생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해야 할 국세라 할 만하다. 55년생 문제점이 도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67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79년생 관리와 유지에 철저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게 되리라. 91년생 잘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64, 98
申	44년생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56년생 겸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본인은 정작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68년생 추진하면 성사될 것이다. 80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92년생 지금 도모하지 않는다면 침체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1, 91
酉	45년생 한 번 금이 가면 회복할 수 없다. 57년생 상호간에 발전을 이룰 것이다. 69년생 응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도 필요하다. 81년생 현재에 구애 받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정하자. 93년생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0, 57
戌	34년생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46년생 외관에 이끌리면 대세를 가늠하기 힘들어진다. 58년생 생 조건을 안정되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 하리라. 70년생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82년생 순환하면서 상생의 기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09, 23
亥	35년생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47년생 노파심을 버리고 면하게 지내도 되는 마땅하다. 59년생 폭 넓은 변수를 갖게 된다. 71년생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83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15, 5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